

실무중심 기능교육 필요

서명현 / (주)태신인팩 대표이사



제17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수료한 (주)태신인팩 서명현 대표이사는 “포장기술관리사 교육과정에서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으나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정해진 기간 내에 교재를 읽고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교육 과정을 스캔하다보니 업무를 하면서 자필 작성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부족해 시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포장기술관리사는 교재를 통해서 포장기술 및 업무 전반에 관한 많은 내용을 알게 되어 포장기술 관련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책으로만 진행 되다보니 중요하고 꼭 알아둬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하기가 힘들었고, 또한 공부를 하다가 모르거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질문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프라인 교육도 병행되면 좋을 것 같다는 통신 교육의 문제도 지적했다.

서 사장은 “교육을 수료하고 포장기술관리사가 되었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아직은 부족한게 많고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당당히 포장기술관리사라는 점을 말하고 인정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 할 계획 입니다.”라고 자부심과 함께 그에 걸맞는 지식 습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패키지 제작 업체인 (주)태신인팩의 대표이사로서 재직 중인 서명현 사장은 생산중인 제품들의 품질 향상, 보다 고급화되고 혁신적인 패키지 개발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중점을 뒀 기술 향상을 꾀 해 자사 제품의 기술을 한단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 사장은 “포장관련 업계 트렌드의 변화나 외국의 포장관련 우수 기술 자료나 제품 및 회사에 대한 소개같은 자료 등을 소식지나 메일로 정보제공하는 방법을 찾아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며 협회가 포장기술관리사들에게 새로운 기술 변화와 업계 소식 등을 제공하면 관리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서 사장은 앞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태신인팩을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패키지 업체로 성장시키고 또한 당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포장산업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라고 밝혔다.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서 사장은 포장기술관리사 통신 교육 외에도 현재 포장 업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 중심의 기능교육도 진행하여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교육기간 늘리고 집합교육필요



한승현 / 성안기계(주) 품질관리부 부장

(사)한국포장협회에서 실시한 제17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서 94.3점으로 2등을 차지한 한승현 성안기계(주) 부장은 “포장기술관리사 수료과정에서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는 것 같으나 그나마 힘들었던 점을 찾으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포장기계 분야 외에 다른 생소한 분야를 접함으로써 경험이 없는 분야였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점이 어려웠고 업무와 공부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웬지 눈치(?)가 보여 집에서 레포트를 작성했던 점이 가장 힘든 점” 이었다고 말했다.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진행하면서 지급된 교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지식을 넓힐 수 있었지만 지식의 깊이를 깊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제한적이어서 교육기간을 늘렸으면 하고, 단순히 레포트로 과제물을 대신하다보니 필요 한곳만 찾아서 공부하게 되므로 집합교육도 필요함을 개선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협회차원에서 수료자들에 대하여 포장산업과 관련된 신기술 정보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 부장은 “운이 좋게 성적우수자로 되어 이런 영광이 주어 졌는데 진정한 포장기술인이 되고 싶으며 포장기술관리사로 불리기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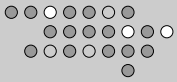
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할 생각” 이라는 다짐도 밝혔다.

한 부장은 현재 성안기계(주)에서 품질관리부 부서장으로서, 생산중인 Printing 및 Converting 기계류의 성능검사, 품질보증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포장기술관리사 수료를 계기로 품질업무에 있어 편협한 수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과 다양한 기술과 지식으로 포장기계의 품질향상 및 개선을 통해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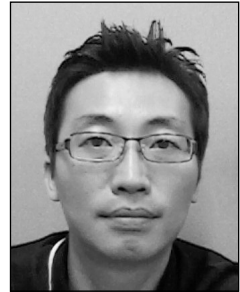
그는 평소 느낀 점인 “포장관련 기술자료를 찾거나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이를 한곳에 모으는 DB 작업을 구축하여 많은 포장관련 인력이 참고로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통신교육을 계기로 우선 하는 포장기계 품질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향후 기회가 되면 포장기술사에 도전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 부장은 “이번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 현재 근무회사에 재직기간이 짧아 기본지식이 없어 배우고자 하는 취지로 공부하게 되었는데 운 좋게 성적우수자가 되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협회와 성안기계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실천하겠습니다.”라며 말을 맺었다. ☐



다양한 포장기술 접해 도움



서명원 / 신안포장산업(주) 품질경영팀 대리

직장인으로써 11주 기간동안 직장업무와 병행하여 공부하려니 조금 벅차서 집에서 답안지를 작성 환경우가 많고 한 주 한 주 답안지를 보내야한다는 점이 은근히 신경쓰였다는 서명원 신안포장산업(주) 계장은 제17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서 94.2점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3등을 차지했다.

서 대리는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의 개선점으로 교재의 내용이 바뀌지 않은 점 예를 들어 개정된 법규가 바뀌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오타도 있어 새로 시작될 18기에서는 교재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업데이트 해 주길 바라며 이와 함께 2~3주 정도는 인터넷강의 및 동영상강의 등으로 색다르게 교육하는 것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는 골판지 회사 업계에서만 11년을 근무하였지만 이번 통신교육을 통해 아직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포장의 다양한 내용을 알고 배우게된 계기가 된 포장기술관리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자부심을 내비쳤다. 서 대리는 “골판지업계 특성상 여러 분야의 업체를 상대하는데, 분야별 특성에 맞는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업무에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사내 교육 자료로 포장기술관리사 교재를 참고할 수 있어 교육이 효과적이었고 현 실무에도 도움이 되었다” 고 말했다. 그는 협회와 같은 민간교육과 함께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해서 포장관련학과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 자신도 포장관련학과를 졸업하였지만, 현재는 폐

과되어 후배들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고 또한 포장관련학과 졸업 후 관련 기업에 취업이 용이하도록 업계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서 대리는 “개인적으로 이번 포장기술관리사를 시작으로 재학중 취득 못한 포장기사를 거쳐 포장기술사까지 도전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포장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포장만으로 제품을 판단하기도 하여 포장의 화려함 즉, 과대포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재직중인 업계의 골판지포장은 외부포장용골판지상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골판지상자에도 그 포장의 화려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진국같은 경우엔 아주 필요한 부분만 인쇄하는 단순화가 보편화된 것으로 압니다. 그로인하여 생산 효율 증대, 고객 요구사항 축소로 인한 고객만족 증대 등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도 기업간의 과대포장 경쟁을 없애고,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어 하루빨리 포장의 단순화가 자리잡았으면 합니다.’라며 지금의 업계 현실을 꼬집었다. 서 대리는 “이번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은 회사의 부서장이 추천 해주어 골판지업계 외 포장 전반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뜻밖의 3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올려서 더욱 기분이 좋다.”며 이런 기회를 주신 부서장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힘써주신 한국포장협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

힘들었지만 학업에 도움

조선향



제17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서 학생부문 최우수 성적을 차지한 조선향(강릉원주대학교 식품가공유통학과) 학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좋았다”며 “학기중에 진행한 수료과정이라 과제를 제출하는 시간이 약간 빠듯하기도 하였고, 자필로 답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PC로 작성할 때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고 번거로운 점이 있었지만 매주 제출하는 과제를 통하여 학업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말했다.

처음 받아보는 통신교육이라 적응이 안돼 어려웠지만 교육 내용에 대한 인터넷 자료(ex. 동영상 자료) 제공된다면 이론 교육 내용에 대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돕고 교육의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강릉원주대학교에서는 교수님께서 포장기술관리사 교재 내용에 대한 예습과 보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교재에 틀린 부분과 오래된 통계자료들이 적잖이 발견되어 교수님께서 정정해 주셨다. 만일 교수님께서 정정해주지 않으셨다면 교재에 나온 내용 그대로 공부를 하였을 것이다. 교재가 신속히 수정되어 2013년 포장기술관리사 수료과정시에는 학생들이 잘못된 내용을 학습하는 오류가 발생되지 않길 바란다.는 지적을 했다.

조선향 학생은 포장기술관리사로서의 각오에 대해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 성적으로 수료한 만큼 앞으로도 포장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겠다”며 “학교공부와 큰 차이점은 없었고 매주과제를 제출할 때마다 다른 강의의 과제를 준비하는 것만큼 열심히 자료를 찾아 제출한 결과가 좋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포장산업의 성장에는 환경친화성, 위생성과 안전성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포장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을 위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제품에 대한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포장업계가 신제품 개발과 기술개발 및 포장디자인분야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하여 글로벌적으로도 더욱 더 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 말했다.

이번 포장기술관리사 수료를 토대로 포장기사, 포장산업기사 등 포장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여 추후에 식품가공업계 및 관련업계에서 포장을 아는 식품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조선향 학생.

“길지도 짧지도 않은 11주동안 수료과정을 통하여 포장기술에 관해 그동안 배웠던 내용도 정리할 수 있었고, 또한 새로운 많은 지식을 학습할 수 있었다.”며 식품전공자로서 비식품포장분야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교육의 기회를 주고 더구나 큰 상을 준 한국포장협회에 감사함을 전했다. ☞

식품분야 포장기술인 될 터

박인영



제17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2등을 차지한 박인영(강릉원주대학교 식품가공유통학과) 학생은 “학교생활과 병행하여 포장기술관리사 교육11주 동안 매주 답안지를 제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항상 시간이 빠듯하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은 단원별 내용상 수준 차이가 심해 어떤 단원은 학교 수업시간에 예습과 보충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매우 전문적 내용을 다룬 부분들이 있었다. 즉, 포장기술사나 포장기사가 아닌 포장관리사 수준에서 학습해야 할 수준의 교재가 제공되어 졌으면 한다. 또 이론적인 내용과 함께 인터넷강의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이 진행되면 교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교육의 개선점을 말했다.

“포장기술관리사 수료증을 받고 더구나 과분한 수상까지 해 이에 걸맞도록 앞으로 식품포장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는 박인영 학생은 “학부 2학년때 식품포장 과목을 이수하며 포장재료, 포장기법, 환경포장, 포장재 안전성 등 분야에 대하여 학습하였으나 이번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통하여 학교 과목보다 더 다양한 포장분야에 대

한 실무적 내용을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배울 수 있어 유익하였다”며 이런 교육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직은 일반인들에게 포장학이라는 자체가 생소한 분야인 것 같지만 국내 포장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선 지속적인 마케팅과 홍보가 필요한 만큼 협회에서 주최하는 통신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장전시회나 대학생들을 위한 인턴십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생겨 포장이라는 분야가 널리 알려지길 희망하며 우리 같은 식품전공자들도 포장분야에 취업의 기회가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말했다.

이번 포장관리사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식품포장 분야의 기술인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심화된 포장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 업체 실습을 통하여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나갈 예정이라는 박인영 학생은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받으면서 다소 힘들었는데 이렇게 우수성적자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

또한 그 동안 나름대로 답안지 작성에 최선을 다한 노력이 보답받은 것 같아 가슴 뿌듯하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 협회에 감사드린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

단어 쉬게 풀어 이해도 높여야

강희진



“통신 교육 중 매주 문제를 받고 그 답을 제출하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광범위해서 답을 작성하는 부분이 조금 힘들었고 매주 제출해야 하는 일정이 학교 시험기간과 겹칠 때는 조금 시간이 촉박하고 여유가 없어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수 수료자로 선정되어 기쁘다”는 강희진 학생(강릉원주대학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육을 받다 보니 보충자료나 첨부자료가 조금 오래되어서 현재랑 많이 차이나서 혼동이 오는 부분이 많아 그것을 조금 개선하고 단어 설명을 자세하게 하여 교육받는 사람들의 이해가 쉽도록 하면 좋겠다는 교재의 개선에 대해 강조하는 강희진 학생은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받고 나서 전공하고 있는 식품과 포장에 대한 연계와 이해도가 빨라져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이제 시작하는 제가 아직은 포장기술관리사라는 명칭이 어색하지만 견습생으로써 더 배운다는 자세로 지식을 많이 쌓고 공부해가면서 포장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강희진 학생.

강희진 학생은 “학교 공부는 확실히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대화를 주고받음으로써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 바로바로 질문을 통해 해결이 되는데 통신교육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해결이 늦거나 그냥 모르는 상태로 남겨두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 통신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식품부분에 있어서 내용물의 안전이나 식품에 유해물질 유입에 대해서도 포장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식품과 포장의 연계가 강화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말했다.

“이제 대학교 3학년 생활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4학년이 되기 전에 진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결정하고 싶고 그에 따른 공부도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는 강희진 학생처럼 포장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미래 포장인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